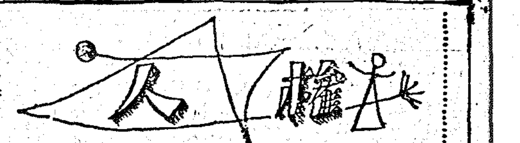


最貴한것

어느 死刑囚의 경우

金洪燮

어느날 아침 나는 S聖堂 B神父하테서 「이런 사람을 알겠느냐?」는 물음과 더불어서 한通의 封緘葉書를 건너받았다 편지사연은 대개 다음과 같은 內容의 것이었다

「─前略─ 神父께서는 나의 이런所謂를 당돌하다고 하실는지? 그러나 저로서는 絶處의 筆頭에선 어찌할수없는 心情에서인 것입니다 저는 旣往 至重最惡의 罪過를 저지르고서 지금 얼마 남지않은 生命의 날을 헤아리면서 이제 깊은 뉘우침 속에서 마지막 단 하나의 所願으로 영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저의 이러한 懇請을 업신여기지 말으시고 失期의 恨을 머금지 않게 하여주시옵소서……」

S刑務所에서 장○도

물론 이 편지를 보낸이를 내가알까닭이 없다 그러나 알아 보아야 겠다는希望이 있었으므로 나는 이튿날 刑務所의 門에 들어섰다

死刑囚의 懺悔

拘置監안의 一房室─잠시후에 들어온 C君의 透明한 顔色이며 맑은 눈동자는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허물을 犯한 사람인것같지는 않다 罪惡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어찌보면 善良한 市井人의 한標本으로도 그만한 爲人이었던것이다

「B神父께 보낸 편지를 보고 왔읍니다」 「네─실은 B神父님은 물론 一面識도 없는 분입니다 아직제가 社會에있을때에 어떤機會에 우연히 그함字를 알아두었던 것이지요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편지사연과 같은 決心을 하기에 이르른 경로를 말해주실수 있을가요」 「저는 무서운 ××殺人強盜올시다 그래서 이미 極刑의 宣告를 받은몸입니다 ─裁判을 받을때만해도 저의허물을 완전히는 깨닫지 못하고 法官님앞에서 갖은 惡態를 다했던것입니다 이다 裁判도 確定이되고 無聊히 생각에 잠겨있을 어떤때에 우연히 信心에 對한 二、三書冊─그中「宗敎의 根本問題」와 「四億人의 信仰」은 한四、五十次를 되풀이하여 읽었읍니다 그리고나서 모든것을 새로운 觀點에서 熟慮하게 되었던것입니다 過去三十平生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問題 即 사람이 이 世上에 난 까닭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하며 또 그 總末은 어떻게 될것인지에 對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至今까지의 惡人이 받을 宜當한 應報라는 諦念속에서 다시 한줄기 앞을내어다 볼수있는 希望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그리고서 決心하기에 이르른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世上에 태어난以來 社會에서나 刑務所안에서 眞情이라는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는 그런것이 있으리다는 생각조차도 가져보지 않은 不幸한 人間이었읍니다 그렇던제가 늦게나마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되었던것을 明白히 깨닫게 된것입니다 저마다 所重한것─비록 罪의 값을 지고서 두동강이 나게 되었을망정 不滅의 靈魂을 깨닫아 알고 그것의 救濟를 바라는 切切한 希願을 느껴 將來를 슬퍼하지않을 自身을 갖기에 이르렀읍니다」

宗敎는 阿片인가

─일찌기 宗敎를 阿片이라일러 明哲한이가 있었다 莫重한 罪過를 犯하고 極刑이 確定된 마당에서 오히려 그래도 거기 밤이있고 술이 있고 享樂이있고 休息이 아름다운 山川景槪가 가득히 차있는것으로 보여졌던 바깥世上 過去에의 未練을 空白으로 돌려 斷念할것을 覺悟하고서 이제 寸刻으로 다가오는 絞首의 무거운 밧줄을 눈앞에 그리면서도 몸부림과 憎惡의 絕叫대신에 조용하고 맑은 心情으로서 來日을 靜觀할수있기에 이르렀다는것이 確實히 奇異한 現象이아니면 「阿片」에 依한 中毒이 말수밖에 없을는지도 모를일이다

罪人의 깨끗한눈물

B神父를 모시고서 再次 刑務所를 찾은것은 그로부터 一週日後였다 고요한 應接室에서 이미 面識이 된 나를 對하자 그는 상냥한 表情을 지었다 무슨 憐憫을 바라는 者의 卑屈이 아니고 正當한 願意에의 協助를 求하는 떳떳한 信賴에 찬 것인것이다 神父의 懇曲한 訓諭와 勸告 激勵를 하나도 떼지않고 받아들이는 그는 그야말로 녹초처럼 몸을 가누지 못할 地境으로 참회와 새 所望의 交錯에서 솟아오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던것이다 「世上에서 가장 깨끗한것 그것은 뉘우치는 罪人의 눈물인것이다」라는것은 西歐의 어떤詩人의 叙述이었다 「까느디」는 그의 自叙속에서 少時 어떤 허물을 저지르고 그 父君앞에서 改過를 盟誓하던 場面을 回想하여 「그것은 아마 有名한 畫家가 全精力을 기울여서 描出해낼만한 價値있는 畫題가 될것이다」는 한대목이 떠오른다

高貴尊嚴한人權

사람은 아무도 남을 업신 여길 權利는 없다 그가 設令 아무리 微賤한 微小한 者라 할지라도 한가지로 至尊하신이의 손에 된者요 무릇 사람은 다 그앞에 同列의 被造物인 位置에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人權의 不可侵 不可讓의 意味를 무슨 戰爭이나 革命에서 爭取된 戰利品목으로 呼稱하는등 안에는 不斷한 再侵蝕의 不安에서 免脫되기를 바랄수는 없을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 由來의 멀고 높음과 또한 깊음의 까닭을 透徹히 體得 體知하지않는限에는─이自覺없는 人權에의 부르짖음은 그聲量의 多寡에 不拘하고 그것은 極히 意味稀少한것이거나 或은도리어 그것에 對한 汚損 妄瀆에 떨어지고 말수도 있는 일인것이다 最貴한것─人權의 尊嚴한所以然을 나는 이렇게 理解하고 이렇게 느낀다 (筆者・서울高法部長判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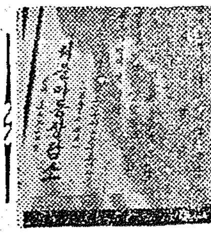
남의權利尊重하자

人權相談所의 諸問題

朴承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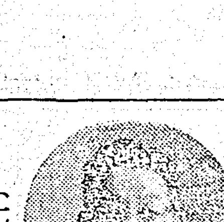
數字를 提示 못하는것이 遺憾이지만 法務部內의 人權相談所에는 一年間이면 數많은 事件의 申告가 밀려들어온다 모두 人權侵害事實申告라고 되어있는 것은아니지만 投書 陳情書 建議書 嘆願書等等가지각색의 이름으로 내어지고 이모든事件이 人權侵害에關聯되지않은 事案이란 하나도없다 그러나人權侵害라고하여도 거의全部가 犯罪事件에關한 일이다 勿論 法務部란 곳이 搜査의 中樞機關인 檢察을 監督하는 機關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國民一般이 「人權」이란 概念을 너무偏狹하게 생각하는까닭으로 恒常 犯罪事件에 關聯되는것 만을 알려주는것이 아닌가하는 感이든다 現代社會의 「人權」이란다시 말할나위도없이 우리 生活全般에 亘하는 問題이고 오히려 刑事司法的인 問題보다는 우리의 生活權的인 것이 더욱 重要視되는 것이다 經濟的 社會的인 面에서의 人權侵害가 特히 우리나라와같은 後進社會에서 더욱많이 取扱되어야만 할것이 아니겠는가 民主國家의法이란 우리 生活의 모든部面을 모두 뒷받침하고있는 것이니까 亦是 이러한일도 法을 根據로하여 解決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點에서 아직도 우리 國民大衆이 「人權」이란무엇이냐하는것을 제대로理解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切實히 느끼게된다 그래서 今年의 人權擁護週間에는 무엇보다도 더이 問題를 잘 알려주고싶다

또 人權侵害事實申告事件의 數字는 들어서 적어도 그數字만큼의 侵害事件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버릴수없는 事情도 있다 이러한事案은 眞相을 알아보려는 擔當公務員이라고해서 그 調査한 結論이 모두 眞相 그대로라고 斷定할수는 없는 노릇 이지만 何如間 그 事業의 大部分이 虛構의 事實이거나 一種의 臆測에 不過한 경우가 많은 形便이니 이것도 어지러운 우리社會의 斷面을 보여주는것인지도 모르겠다 申告를 하는사람이 抑鬱한 사람이 아니고 申告를當해서 調査를 받고 精神的苦痛을 當하는 사람이 도리어 抑鬱한 地境에 빠지게 되는데가 있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事件을 取扱하는 때에 이러한點을 考慮치 않을수가 없다 大體로 우리 社會의 風潮가 自己의權利는 끝까지 主張하면서도 남의權利나 남의處地는 돌보지않고 남의 權利는 아주 拒否하여 버리려는 傾向이 없지않다 權利란 반드시 義務를 업고있는것이고 남의權利를 尊重한다는것은 最小限 社會人으로서의 道德的인 義務인 것이다 一見 些小한일같은 義務背反이 우리의 道義를 頹廢케하는것이아닌가한다 끝으로 우리의 苦衷을 吐하여보라고 한다면 駐韓「유엔」軍으로부터 被害를 입은사람을 法的으로 救濟하는길이 漠然한일이다 大槪의 경우에는 直接 道義的인 救濟는 받지만 서로 見解가 다를때에는 解決할根據가 없는것이다 하루速히 行政協定이 締結되었으면하는것이 또한 우리의 懇切한 要請이다 (筆者・法務部法務官兼檢事)



人權과拉致人士

李活



(一)

一九四八年十二月十日 世界人權宣言인 人權共同宣言이 採擇宣布된지도 於焉 열돌을 맞이하는 今年은 特히 우리政府樹立十周年이 되는만큼 더욱感銘깊은바 없지않다

또한 열돌을 맞이하는 人權共同宣言日을 中心으로하여 國際的으로 많은記念行事가 盛大히 展開되지만 우리로서도 더意義깊고 廣範한 記念事業을 展開하게되었음은 甚히慶賀할바이다

이제 人權運動은 人權共同宣言에서 主張되고 强調된 人間의 基本的인 自由와 人權의 尊重과 增進을 爲하여 不斷히 繼續되고 있는바 바야흐로 生存權에서 生活權을 確保하려는 의침이 날이갈수록 드높아가고있는 實情이다

即 누구나 勤勞하는 以上 同等한權利를가진 人間으로서 幸福한家庭을 가질수있으며 平和와 自由를 누리며 삶의보람을 찾을權利를 享有할수있어야만 한다는것은 當然한일이며 同時에 勤勞力이 없는 老幼病弱者에 對하여는 社會保障制가 至極緊切한바이다

(二)

人權의 尊嚴性이 人間의 가장 切實한 問題임에도 不拘하고 人權에對하여 無慈悲한 專制와 獨斷을 恣行하고 있는 共產獨裁勢力은 해를 거듭하면서 國際的으로 膨脹하여가고 있다는 事實과 아울러 우리나라에서와같이 白晝에 旅客機를 拉北해가는 따위의 蠻行等等은 實로 痛嘆하지아니할수없는일이다

뿐만아니라 六・二五事變때의 不法拉致者에 對하여는 國際的으로 救出할수 있는 機關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具體實現을 못보고있으며 韓美間에서도 行政協定의實現이 遼遠하고 또한 越法 橫暴輩들의 不法武器使用으로因한 人命損傷과 公共秩序를破壞하는것等및 令狀의濫發等等은 그모두가 國民生活을 不安과恐怖속으로 몰아넣어 마침내는 明朗한生活에暗影을 던져주는것이 아닐수없다 目下論議되고있는國家保安法案에 對하여서도 우리는深甚한關心을가지고 그歸趨를 注視하는바이다

(三)

이러한 現實밑에서도 人權擁護運動은 偉大한 人權共同宣言의 빛스럽고 참된精神에 依據하여 줄기차게 展開되고있는中이다 그리하여 人權宣言의 외침은 全世界的으로 時代的인 부르짖음이 되고있다 이러한 强力한輿論의 뒷받침이 되고있는 人權共同宣言이야말로 그自體가 지니고 있는 價値와 迫力에 依하여 그어떠한障害와 壓力에도 不屈하고 그以上의理想과目的을 追求하며 實現하는데 突進할것을 疑心치않는다 이러한實情은 國內的으로도 우렁찬 人權尊重의思潮가 높아가고있으니 漸次實質的이며 鼓舞的인 向上을 볼수있음은 매우반가운일이 아닐수없는것이다 더우기 世界史的인 人權共同宣言을發布한지 十周年을맞이한 尊貴하고도 莊嚴한基本精神에 立脚하여 效果的이며 實踐的인 人權擁護運動에 全力을 傾注한다면 반드시 巨大한 成果를 드러낼것을 믿어마지않는다 이와同時에 앞으로의 우리의 힘찬 人權尊重의 提高와 精進은 北韓同胞들을 抑壓政治로부터 自由解放시켜 國土統一의 기꺼운날을 促進하게될것이다 (筆者・國際人權擁護韓國聯盟委員長)

人權과兒童福祉

李鍾元

兒童福祉法이 생긴 以來 成人과 無差別하게 獄囚身勢가 되었던 少年들에게 社會科學의 發達에 依하여 自覺된 人情이 베풀어 지게되어 處罰主義를 止揚하고 更生의길을 찾아주게되었다 精神的으로 肉體的으로 아직 未成熟하여 道德的 知的 判斷能力이 없어서 成人의 保護없이는 獨立할수 없으며 더우기 環境의影響을 九〇% 받아들이는 이 年齡期의 少年들에게 行爲結果를 全的으로 그들自身에게 돌려보낸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이다

어떤少年이 어려서부터 物件을 훔쳐내는 버릇이있어 그것이 나이가갈수록 甚하여졌고 結局은 檢察의 손에 넘어가게됐다고하자 이少年의 經濟的背景이 좋지못한것도 아니고 父母가 갖추어 지지않은것도 아니며 經濟的으로도 어느程度의 餘裕가있어 裕福하다할수있으며 父母도 敎育받은一見 敎養있는 父母인 境遇에 이 少年의 盜癖은 어떻게 說明할것인가? 그는 生理的으로 저주받은 人間인가? 이러한問題앞에 精神醫學이나 心理學은 그들의行爲를 充分히 辯護해줄수있다 여기에서 그의生育史 家庭環境 父母의性格 父母의兒童에對한態度 兒童의知能 性格 兄弟와 兒童의關係等等 그家庭의 一般的雰圍氣 또는 때때로 움직여지는 조그만 感情의傾向까지 具體的이고 詳細한 材料를 가지고 그는 왜 物件을 훔쳐야했는가 하는데 對한 說明을얻게된다 이것은 兒童相談所의 役割中의 一部를 例로든것이다

兒童相談所의 役割은 結局 積極的인 意味에서는 健全한 人間으로서 社會에 適應해 나가도록 治療 또는 指導하여 주는것이고 消極的 意味로서는 防犯의 役割을 하고 있다고 할것이다

社會事業家의 家庭 學校環境調査 精神科醫의 診斷 그리고 心理學者의 臨床心理檢査等을 通하여 科學的인 方法으로 問題의 原因을 찾고 또는 그解決을 爲해서 治療指導를 하여 效果는 大端히 實質的인것이 크므로 日本만해도 이미 三百餘個의 兒童相談所가 都市와 地方에 設置되어 活潑히 움직이고 있다

서울兒童相談所는 韓國初有인同時에 唯一의施設이며 社會事業 精神醫學 心理學 特殊敎育等 斯界의 權威專門家들의 有機的活動으로 開拓者의 苦衷을 克服하여 나가고 있으며 이미 三月一日 開所以來 今日까지 九十餘件을 取扱한바있다 (筆者・서울兒童相談所總務)

放送

10日 水曜日

◎서울放送 (HLKA)

◇저녁

◎第1放送 (710KC)

▲5.05 이지방소식▲5.50 라디오박사▲6.40 신문논평▲6.45 이애기저애기▲7.10 시사해설▲7.20 승리의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회장 이활▲7.25 방송만필「주례」이원수 작▲7.40 연속극「먼훗날」(제3회)▲8.00 수요일밤의향연▲9.40 연속소설「백조의곡」(제29회) 낭독 구민▲9.55 오늘의화제 ▲11.45 대북방송

◎第2放送 (970KC)

▲5.30 학습지도 (국민학교) 사생 국제연합에대해서②▲5.45 학습지도 (중학교) 지리「뉴지랜드」▲6.15 국군의시간▲7.15 자유대한의 소리 (영어) ▲7.30 학습지도(고등학교) 공민「법원의조직과권한」▲7.45 여성과교양 좌담회「여성의권리를보장하는길」▲8.00 방송대학 (법률) ▲8.20 학생음악회▲8.40 이달의문화계▲9.00 북한동포에게보내는시간▲9.30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 ▲10.00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중계 ▲10.30 인민군에게보내는시간

文化短信

「호프만」敎授講演 10日서울大講堂서

韓獨協會와 獨逸學會共同主催로 方今 韓國文學과 古典音樂研究次訪韓中인獨逸「마르부르그」大學의「호프만」敎授를 招請하여 十日(水)下午一時半 서울大學講堂에서 「中國詩의 精神과形成」이라는 題目으로 講演會를開催할 豫定이다 그런데 「호프만」敎授는 中國文學研究의 大家로 알려져있다

韓國敎育學會 13日月例會開催

韓國敎育學會에서는 十二月十三日 下午二時三十分 大韓敎育聯合會 會議室에서 十二月月例會를 開催키로되었는데 研究發表者와題目은 다음과같다

▲「美國의特殊敎育」 秋閏姬(梨花女大)

▲「學歷測定에關한 一研究」 田溶新(中央敎育研究所)

全國速記競技大會 大韓速記技術學校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와大韓速記協會共同主催로 第二回全國速記競技大會가 十二月十三日(土) 上午十時 民議院內大韓速記技術學校에서 開催되는데 그要綱은 다음과같다

一、競技級別 正級 每分三〇〇音字以上 準級每分二五〇音字以上

一、出題 演說體및論說體

一、飜文時間 各級實速記時間의 十五倍

X마스料理特講

十日부터 一週間市內퇴계로所在東西料理學院에서는 X마스料理및 大小宴會床設床法을 特別無料講義하리라고하며 講師는 朴成水氏와 鄭飛燕氏라고 한다

新刊紹介

▲弘大週報 第六一號‖弘大週報社發行 값 三〇圜

▲새가정 十二월호‖새가정社發行 값一五〇圜

▲國民報 第三八六號‖國民報社發行 값五〇圜

▲연세춘추 제一五一호‖延世春秋社發行

▲재노동 제二十九호‖재노동사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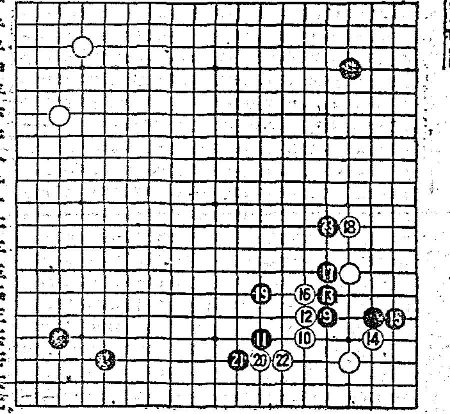
第八回 昇段戰

第五局

(第二譜) 9〜23

互先 李成範 初段

先番 姜哲民 初段



急戰模樣

李 姜兩初段은 現有段者들中에서 純粹아마추어에 屬하는분들이니 本業의餘暇에 研究하여 이水準에 達하고있음은 驚嘆할일이라 하겠다

李初段은 年前渡美時에 그곳棋界에서 그勇名을 떨치고있음은 外紙가 傳하고있는바 앞으로 韓美間에바둑을 通한 交流에있어서 氏에게 期待되는바 크다

黑九, 十一 最新手法이며 濃濃한 闘志를 보여주는 着想이다

白十二若何 黑十一이 白十二를 要求한것이나 黑의 注文에 따지는것이 아닌가?

이手로는 13의十六으로부는手法이 最近에 研究되고있다 黑十七이 「日字의 突出」이니 白十六十八은 所謂「兄弟싸움」이다 黑十九 下邊一帶를 넘보면서 全面的인 攻勢를 取하니 初盤 벌써 黑에게 알기쉬운 急戰模樣이 되어가고있다 (趙南哲)

젊은設計圖

林玉仁 作

韓奉德 畵

(179)

大地로가는꿈(十二)

그날도 아침 아홉시를 오분 앞두고 고혁은 그가 맡아하는 잡지사 편집실에 들어섰다 다른생활이 다 무궤도한것같이보이는 고혁이지만 시간관념만은 이상하리만치 정확한 편이다

잡지사라면 대개출퇴근시간이 흐릿한 법이지만 고혁의사만은 아침 아홉시 출근에 저녁 섯시 퇴근이 엄격히 지켜졌으며 그 까닭이 있다 편집장인 고혁의 성격에 있다고 볼수 있다。

무궤도 하면서도 시간관념이 강한사나이 ─ 이런 고혁을 두고 언젠가 황군희는 말한 적이 있다。

『당신속에는 양극단의 별례가 동지에 서식(棲息)한다고 할수 있어요。 텁텁한것 같으면서 까다롭고、잔인한것같으면서 선량한 구석두 있구…。 그렇기때문에 곁의사람만 죽어 나거든…。 배든을수두없구、삼킬수두없구、』

오늘도 말끔히 청소가된 사무실에 일곱명의 기자들이 대기하고있듯이 앉아있다가 고혁이가 들어서자 일제히 인사를한다。 그것도 여느날과 다름이 없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긴박한 공기가 고혁에게 후끼친다。

『왜 무슨 일이 있었오?』

하고 고혁은 문결에앉은 여기자에게 물었다。

『저 오늘 신문에…』

하고 여기자가 대답하려는것을 편집차장격인 남자기자가 가로맡아 말한다。

『오늘 조간 안보셨읍니까?』

하면서 부석부석한 고혁의 얼굴을바라본다。

『어、어제 늦두룩술을 먹어서…。 왜 뭐 났나?』

남자기자는 어이가 없다는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없이

『큰일 났에요!』

하는데 한편에서 여기자가 조간을 갖다가 고혁의 앞에 내놓는다。 삼단쯤 뽑은 사회면기사에 붉은 잉크로 줄을 그었는데 그 제목을 보자、 고혁은 무릎이 해르쑥해짐을 느꼈다。

『淑女界 逐廢刊』

이라는 여성잡지가 초호활자로 굵직히 박혀있었다。

『탕아가본 여성의 四十八면、탕녀가본 남성의 四十八면。』

이라는기사가 이번호 발간할때부터 위태위태하다 느꼈는데 설마 폐간까지되리라고는 꿈에도생각못했다。

『사장님께서 전화가왔는데요、공보실로 들어가신다구 고선생님 나오시면 기다리시라구요。』

『그래?』

하면서 신문에 다시 눈길을 돌렸지만 기사는 읽어지지 않았다。 읽으나마나 뻔한내용일 것이며 뻔한 논조일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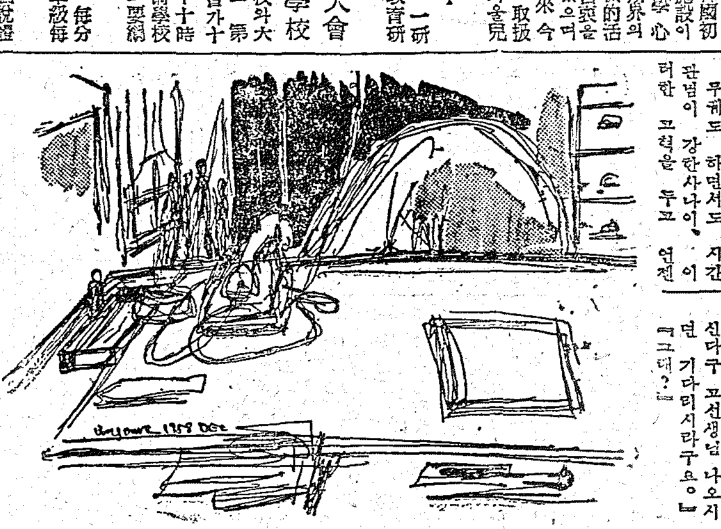
앞으로의 일이 여러가지로 걱정이였다。 복간운동(復刊運動)을 하든지 이름을갈아 새로판권을내든지 방법이 아주없는것도 아니지만 거의결정적인타격임에는 틀림이없다。 경쟁지가 삼사종류나있어서 날짜는 고사하고 시간까지 다투어내는판인데 복간운동을 하느니 새판권을 내느니 하다가는 그동안에 독자들을 타지(他誌)에 떼앗길것은 뻔히 내다 보이는 일이었다。

뿐만아니라 이잡지자체가 어느 방직회사의 선전 기관지처럼 발행되던 터이다 매달 근 백만환석 적자가나던 처지인데 일이 이렇게되고보니 가선 경영주가 손을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기회에 툭 털구 먼디 떠나 버릴가?)

(그렇지만 생활문제는?…) (통속소설이나 부지런히 더쓰지!)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잠잠하던 여러명이 일시에 일어서서 전화 있는데로 가려 했다。 사장한테서 행여나 희소식이전해 올가 싶어서였다。 그러나 고혁이가 수화기를 드니 사장의 목소리가아니라 간드러진 여인의목소리였다。



製作 金漢圭

무명선 無名船

監督 鄭景俊

出演 李斗漢 李裕華 張植俊 李越鎬 羅鍾範 黃順德 申東勳

韓國映畫初有의 海洋大活劇!

스릴과 싸스펜스로 엮은 액숀드라마!

동일푸로덕숀 作品

近日開封

사랑하는 기생에

鬼才 韓瀅模 監督이 心血을 기울인 野心大作!

果然 우리映畫가 同時錄音으로 完成된 映畫는 이것이처음이다

온長安의 話題에 오른 異色巨篇!!

馬來現地로케와 製作費八千萬圜의 巨額의 大作이다

보시지 않고는 말하지 마시라! 過去를 못잊어 흐느껴우는 妾絶한 사랑! 不幸한 現實에 우는 젊은이들의 눈물겨운 사랑…! 사랑하는 까닭에 一生을 눈물속에 보낸 舞姬의슬픈이야기!

滿員謝禮 4日開封

① 10.40 ② 1.05 ③ 3.30 ④ 6.00 ⑤ 8.30

여러분의 國際

喜劇의 王者!!

마ー틴과 루이스가 보내는 一大爆笑劇!!

이映畫는 人生의 우울을 씻는 一大淸凉劑이다!!

VISTAVISION

DEAN MARTIN

YOU'RE NEVER TOO YOUNG

JERRY LEWIS

그대는 젊어

COLOR BY TECHNICOLOR

11日開封 團成社

1回 10.30 2〃 12.30 3〃 2.30 4〃 4.30 5〃 6.30 6〃 8.30

高原의 決鬪

總天然色

前無後無의 痛快無比한 話題의 西部劇問題版!!

아카데미主演男優賞 受賞者 아ー네스트・버그나인

아카데미主演女優賞 受賞者 죤・크로포ー드

스타ー링그・헤이든

아카데미女優賞 受賞者 마ー세ー즈・맥캠브릿지

△世紀映畫株式會社 配給

"JOHNNY GUITAR"

原名 쟈니・기타

西部劇映畫史上 燦爛한 金字塔을 이룬 問題의 巨作

▲聚林의 女王인大女優 죤・크로포ー드가 처음으로 主演한 色彩西部劇!

▲旋風的인 人氣로 全世界를風靡한 「쟈니・기타ー」의 메로디!

西部劇의 超巨作!

連日連回人山人海!

超滿員謝禮!

① 10.00 ② 12.05 ③ 2.10 ④ 4.15 ⑤ 6.25 ⑥ 8.35

6日開封

세기극장

悲妻家

① 11.00 ② 1.00 ③ 3.00 ④ 5.00 ⑤ 7.00 ⑥ 9.00

10日開封 首都